

안녕하십니까? 지식캠퍼스의 김원중 교수입니다. 오늘은
논어 제8강 "제대로 된 그릇이 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되십니까? 대기만성이니 하면서

그릇을 얘기하는 말이 많죠. 저 사람 참 그릇이 작아,
저 사람 그릇이 커, 아니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져.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참 어찌 그릇이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도 하죠. 한마디로 그릇이라는 말을

그 사람의 그 자체 이렇게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는 자공과의 문답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공이 어느 날 공자님께 궁금한 사안이 하나
생겼어요. 왜? 자공은 정치가였었고 또 외교관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오늘날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즉, 그 사람들 그릇이 도대체

어떻습니까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공자의 말씀이 뭐냐면
아! 한 말 두 되 정도의 그릇에 불과한사람들이니

어찌 헤아릴 가치가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러면서 여기에 원문에 보면

두소라는 말이 나오죠. 두소, 글자대로 '두'라는 것은
국자 모양으로 된 것으로서 양을 재는 도구죠. 그러니까

한 열 되 정도 되는 그릇이 되고요. '소'라고 하는
것은 통모양의 잔 정도 됩니다. 다섯 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문에 두소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로 말하면 정말 그릇이 좀 작고 찜찜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자의 말씀은 겨우
한 말 다섯 되 정도 되는, 두 되 정도 되는 이런 사람

정도의 수준에서 정치를 하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또 그런 사람들을 논평할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릇이 작으면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할 만한 자격이 못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자가 생각할 때 이 자공과의 문답에서 공자의
대답은 바로 유명한 '군자불기'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그런 얘기랑 맥락을 같이 합니다. 공자는 자공을 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친구는 왜 그렇게 좀

정말 큰 그릇이 못 되고 맨날 이 나라, 저 나라
쫓아다니면서 외교관 노릇을 하고, 교언영색처럼

말을 교묘하게 하고 영색, 얼굴빛을 꾸미는 이런
존재일까라고 했는데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자공이 공자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스타일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너는 그릇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 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릇 기 자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자공이 한마디 더 하죠. 선생님, 그러면 무슨 그릇입니까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공은 맨 처음에는

좀 칭찬하는 말로 들었다가 그랬더니 공자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련'이니라. '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기입니다. 즉, 제사, 종묘의 제사 때 기장 있죠? 오희 중의 하나인 기장을 담던 귀중한 옥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라 때는 '호'라고 불렀고요. 그다음에 호련, '련'도 제기용 그릇인데 이것도 은나라 때는 '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는 종묘 제사 때 기장을 담는 그릇 정도야. 이거는 이제 자공이 물론

야, 내가 정말 그릇과 같은 그런 귀중한 호와 련과 같은 그런 존재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자의 의도는

제사 때만 쓰는 한정된, 유한한 그러한 기능을 지닌 호련과 같은 정도의 그릇에 불과해. 그러니 니가 지금

정치하고 니가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제우들과 담론을 짓고, 담판을 짓고 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라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자는 또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하죠.

군자불기 즉,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봤을 때 종묘의 제사만 쓸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아니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릇이 돼야 된다는 의미죠. 말하자면 그릇이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지만 사실 밥그릇과 국그릇은 쓸모가 의외로 굉장히 많죠.

그러나 종묘용 제기는 그때 아니면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에 두루 통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융회니 회통이니 이런 말을 하고 또 유연성을 얘기하지만 사람이라면 정말 어떤 것에 딱 맞는

그러한 용도가 한정된 인물이 아니라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고 전인적인 완성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그러한 그릇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공자는 분명히 좋아했던 거죠. 말하자면 자신만의 독단, 그다음에 자신만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것을 재단하는 것은 군자의 자질이 아니라 소인배의 자질에 불과하다. 특히 덕을 닦은 군자가

터득한 도리는 모든 일에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공자가 생각할 때 뭐냐면

관중에 대해서 평가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관중이

누구나면 관중은 아시다시피 제나라 환공을 도와서

춘추오패가 되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중이 유명한 말을 했죠. 뭐냐면 의식즉즉지영욕

즉, 먹고 사는 문제가 풍족해야만 지영욕, 영예와 치욕을 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고 먹는 거, 말하자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절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경제 최우선을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사마천도

사기열전에서 얘기했지만 창고에 물자가 풍부해야 예절을 알며, 먹고 입는 많이 풍족해야 명예와 치욕을

알고, 이 말을 사마천도 똑같이 인용해서 얘기했구요. 관중이 40년 동안 재상 자리에 있으면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방면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또 단행했고, 환공이 춘추재 때 첫 번째 패자가 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중에 대해서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딱 한마디 얘기했어요.

관중의 그릇은 작다. 관중의 그릇은 작았다 이거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는 관중만한 인물이 없잖아요. 관중에 대해서 왜 그릇이 작았냐고 얘기를 하니깐

공자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중은 그릇이 작았다. 그 이유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이 그 당시에 색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왕이 제우들이 신하들과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고 즉, 군주의 집안을 볼 수 없도록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칸막이 비슷한 그런 울타리죠.

그런 울타리를 세워서 군주 나름의 권위를 세웠는데 관중은 자기도 색문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자는 항상 그런 거죠. 군주와 신하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격이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고

일정한 선이 있어야 되는데 공자가 봤을 때는 관중은 감히 군주랑 대등한 위치에서 생각하려고 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심지어 관중은 그 당시 금기로 했던 성씨 셋을 가진 여자들도 두었다. 그렇게 했고,

그 관중은 재물도 대단히 탐욕을 부렸으니 어찌 그런 자가 그릇이 크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평가를 했던

거죠. 즉, 공자가 봤을 때는 관중의 인품적인 측면이 뛰어나고, 관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연성 같은 것이

있어야만 큰 그릇이라고 얘기 즉, 대기라고 했을 텐데 소기라고 했던 그 목적은 관중이 갖고 있는 글자 그대로

세상사 권력욕, 재물욕, 과시욕 이런 것으로 뭉쳐 있으니깐 공자는 비판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자의 그 말씀은
관중이 만약에 도덕과 인의를 목표로 하고, 융통성 있게

군자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면 아마 관중에
대해서 소기라는 평가는 결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관중이 속세의 세속적인 일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니까 공자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그릇이

작은 것이더라는 평을 내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의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자가

자로편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급기사인야, 기지.
군자는 사람을 부릴 때는 그 사람의 그릇에 따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자가 사람을 부릴 때, 또
군주가 신하를 부릴 때도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에

맞게 부러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역으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직장인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내 그릇이 작으면 윗사람도 내 그릇의
크기를 봐서 작게 나를 부릴 것이고, 또 내 그릇이

커서 윗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참 대범하고 그릇도
크고 유연하고 융통성도 있어라는 평가가 따른다면

분명히 큰일을 맡고 큰 그릇에 맞는 일이 부여될
거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현재
타고난 그릇의 크기를 어떻게 그것을 키울 것인가?

또 만약에 나에 대한 직장에서의 평가가 저 사람 참
그릇도 작고, 그릇이 작다는 것은 인품, 됨됨이가 좀

용열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분명 저마다

타고난 그릇, 선천적 그릇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꿔나가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할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공자의 관중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자공과의 대화에서 그것을 한 것은 물론 정치적인

면모가 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의 크기를 키워나가서 자기가 큰일을 맡을 그러한
자질을 갖추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릇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